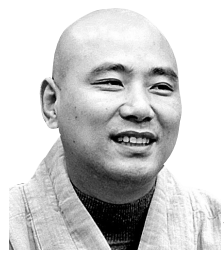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맑음복지유센터 원장

올 한 해 무엇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놓은 8종(이의, 손실, 명예, 훼손, 칭찬, 비난, 고통, 즐거움)의 세찬 바람도 인연의 산물이니 주요한 대상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정리해 보자.

〈육방예경〉에서는 대인관계 중 때로는 보호요인으로 때로는 위협요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관계를 부모, 선생, 배우자, 친구, 이웃사람, 선지식 등으로 나누고 있다.

발언대

민추분 통일주제 송년대담

12월 1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송년특집 대담으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초빙, 다사 다란했던 남북관계를 되짚어봤다. 사회를 맡은 김진환 건국대 교수는 이들에게 올 한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짚은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편집자 주

남북갈등, 불교계서 해결 단초 마련되길



김정은 정권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덕분에 올 한해 불자가 많이 안정됐다. 한때 쌀 1KG이 7천원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4천5백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산업이 복구되지 않고 있고 고환율로 인해 북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식량생산량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는 성숙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모든 재화를 구매한다. 시장이 커지면서 신용부자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자본은 권력과 결합하기 마련이다. 2인자 그룹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주시해 본다면 신용부자세력 중에도 권력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탈북자 계

층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평양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했다는 탈북자 가족을 만났는데 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서는 넓은 곳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공존, 상생, 합심을 주제로 불교통일 담론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방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때문에 불교계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 보태자면 불자들이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화해 정신을 지니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 사회가 가진 내부 갈등부터 치유해야 한다. 신은미씨에게 테러를 가한 일은 소름끼치게 폭력적인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난폭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단정함을 주시해 본다면 신용부자세력 중에도 권력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탈북자 계

총체적 위기... 사회정화위해 불교계 나서야



올 한해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북한 경제가 살아났으며 내부 적도 모두 군을 장악함으로써 힘을 키웠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경제발전으로 정치와 경제권력 사이에 어떻게 유착이 생겨나는데 달려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자와 외국에서 들어온 특권 등의 혜택을 입는 소수 경제권력이 생겨나고 있다. 나진에 들어선 중국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는 거액의 뭉치돈을 들고 오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칭당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 사람들이 점차 돈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도 언젠가는 안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도전에 북한은 별로 기대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올해 북한이 남한에 내민 여러 번의 화해 제스처를 번번이 놓친 것은 아쉽다.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인사 3명이 참석한 것은 최고 명장면이었다. 이후 남북간 2차 고위급회담 성사 가능성이 타진되는 등 남북관계 분위기가 호전의 계기가 마련됐으나 한국이 이를 잘 살리지 못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소통이 막히면 민간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경색국면이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통일, 교류를 논하기 전 한국 사회를 돌아다봐야 한다.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가 더 큰 문제다. 한국이 위기상황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은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정화시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종교적 차원의 접근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불교계가 사회 정화를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연기된 동국대 총장 선거를 보며

동국대 제18대 총장 선출이 종단 외압에 의한 후보사퇴 논란 속에 결국 연기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2월 16일 본관 로터스 홀에서 이사회를 열었지만 격론 끝에 총장 선출안의 안전장치를 못한 채 폐회했다.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동국대 총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조계종의 외압 논란이 불거져서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종단 수뇌부와 회동 후 “종단 뜻을 받들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종단 유력 인사들이 ‘스님 총장’의 공감을 어필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14일에는 함께 후보로 나선 조의연 교수가 “종단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이사회를 보면 입장 차가 분명히 갈린다. 종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측은 선거 진행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종단 외압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결국 이사장 정원 스님은 “교육부 질의 후 이사회를 열

지”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후 사정을 뒤로 하고 상황만을 놓고 보면 종단의 과오가 커 보인다.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가 아닌 종단 원장 스님들이 유력 후보를 찾아 ‘스님 총장’을 운운한 것은 미리 언질을 주는 선의였더라도 외압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나 차기 총학생회가 성명 등을 통해 “종단의 개입으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됐기에 총장 선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인물을 모시는 자리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학생들이다. 종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교의 총장을 선출 하는데 종단이 개입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불교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 물은 쏟아졌다. 명확한 수습책을 종단과 학교 이사회가 내놓아야 한다.

‘불교 통일선언’에 거는 기대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치로 한 불교 통일선언이 이르면 5월께 발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특히 내년은 분단 70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 깊다. 또한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조계종단의 입장과 방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더욱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2월 18일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주요 내용의 골자는 화쟁사상에서 통일 원리를 찾고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남북이 합심해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사실 남북불교간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불교적 통일 방법론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담론 형성하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추분 본부장 지승 스님이 이번 사업을 두고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이론·실천적 지침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보고를 살펴보면 화쟁적 통일론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쟁 통일론의 핵심은 이문일심(二門一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간 합심이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분단 70년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시기였다. 단순히 영토가 반토막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안에서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하게 만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물리적 분단보다 ‘마음의 분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불교 통일선언’은 시기와 담론 면에서 적절한 조치다. 현재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이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만으로는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교계와 민간단체가 나서서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다. 화쟁적 통일 담론이 담긴 ‘불교 통일선언’이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망,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진성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전법사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